

한·중·일 삼국의 불교분야 분류법 비교연구

- KDC, CLC, NDC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Buddhism in Korea, China and Japan

- Focusing on the KDC, CLC, NDC -

백혜경, 남태우,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Baek Hae-Kyung, Nam Tae-Woo

Dep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Chung-Ang University

본 연구는 한국·중국·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준분류법인 KDC, CLC, NDC의 불교분야를 비교 분석하고, 효과적인 문헌 분류를 위한 KDC 불교분야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1 서론

불교는 문자 그대로 '부처님(佛)의 가르침(敎)'이며, 중생이 번뇌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불타의 가르침을 전하고, 그 실천을 돕는 종교이다. 불교는 그리스도교·이슬람교와 함께 세계 3대 종교의 하나로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교세를 펴고 있다. 특히 한·중·일 삼국은 같은 대승불교로 중국을 통해 한국에, 한국을 통해 일본에 불교가 전래되어 경전, 교리 등에 유사점이 있고, 이는 비슷한 주제계통을 가진 관련문헌들을 낳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분류법의 불교분야 항목전개를 비교분석하고 한국십진분류법(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이하 KDC) 불교분야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방법으로 진행한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하여 불교의 발전과정과 조직체계를 고찰한다.

둘째, 한·중·일 삼국의 표준분류법인 KDC 4판, 중국도서관분류법(Chinese Library Classification, 이하 CLC) 4판, 일본십진분류법(Nippon Decimal Classification, 이하 NDC) 9판의 불교분야를 항목별로 비교하고 분석한다.

셋째, 문헌연구와 분류법 비교분석을 토대로 KDC 불교분야에서 수정되고 추가되어야 할 개선안을 제시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불교의 성립과 발전

부처님 즉, 석가모니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여년 전, 지금의 네팔인 타라이 지방인 카필라(Kapila)국 사카(Sakya, 釋迦)족의 정반왕과 왕비 마야부인 사이에서 태어났다. 약육강식의 세계와 생로병사의 괴로움에 대해 사유하다 29세에 출가하여 35세에 붓다가야의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었다. 녹야원의 初轉法輪 이후 45년간 중인도 지방을 유랑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였고, 80세에 쿠시나가라의 사라쌍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셨다.

불교는 시대순에 따라 초기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로 나눌 수 있는데, 부처님 당시부터 불멸 후 100년경까지 교단의 분열이나 분파가 없었던 시기를 초기불교라고 한다. 부처님 재세시 불교의 가르침은 동쪽의 갠지스강 하루까지 서쪽의 아라비아해 연안에까지 전해졌으며, 그 후 제자들에게 의해 변방의 먼 지역까지 전도가 이루어졌다. 불멸직후 教法과 戒律의 결집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마하가섭을 중심으로 500명의 아라한이 왕사성밖 칠엽굴에 모여 아난존자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교법의 내용을 암송하고, 우팔리 존자가 교단의 생활규범인 계율에 관한 부분을 암송하여 僧衆의 승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제1결집은 교단이 존속하고 부처님의 교법이 정리되어 오늘에 이르게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제1결집 후 100년경, 바이살리의 밋지족 출신 비구들이 제기한 10가지 계율의 새로운 해석 문제를 놓고 700명의 장로 스님들이 이 해석이 모두 옳지 않다는 것을 결의하고 율을 결집하였다. 이를 제2결집이라 하며 이에 반대하는 스님들이 별도로 대중부를 조직하니 교단은 상좌부와 대중부로 분열되고 이를 근본분열이라 한다. 이후 상좌부와 대중부는 분파를 거듭하여 18부, 또는 20부의 부파로 나뉘게 되는데 이를 부파불교라 한다.

제2결집 후 다시 100년이 지난 마우리아 왕조 아쇼카왕때 왕이 티싸에게 敎說의 확정과 교단의 화합을 도모하도록 위촉하여 수도 華氏城의 鷄園寺에 모인 승려 1,000명에 의하여 제3결집이 이루어졌다. 이때 구전으로 전승되던 부처님 말씀이 문자화되었으며 경·율에 이어 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내용인 논장이 결집됨으로서 비로소 삼장의 형식을 모두 갖추게 되었다. 부파불교시대의 불교는 인도 본국뿐 아니라 여러 주변 국가에까지 전파되었는데 그중 스리랑카를 거쳐 미얀마, 태국, 라오스 등의 남방 지역에 퍼진 상좌부불교는 오늘날까지도 크게 번영하고 있으며, 이는 남방불교라고도 부른다.

서기 1세기경 부파불교가 형식화되고 학문에만 치중하여 불교 본래의 종교활동을 등한시하자 불교를 본래의 모습으로 복귀하자는 사상운동이 재가불자와 대중부 계통의 출가인에 의해서 나타났고 이를 '대승

불교운동'이라 한다. 이 새 불교는 종래의 부파불교를 소승이라고 낮춰 부르며 자신들을 대승이라고 부르며 부파의 경전과는 다른 독자의 경전을 부처님의 말씀으로 삼아 제작하였다. 그들은 깨달음을 구하면서 중생을 제도하는 自利利他的인 보살을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부각하였고 불교의 궁극적 목적은 열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불에 있고 이것이 부처님이 베푼 교설의 진정한 뜻이라고 역설하였다. 대승불교는 중앙아시아 또는 남방 해로를 통해 중국에 전해졌고 한국과 일본에 전파되어 오늘에 이르며, 이를 북방불교라고도 부른다.

2.2 불교의 조직체계

불교는 佛·法·僧 삼보로 이루어진다.

佛은 불타의 줄임말로 깨친 사람을 뜻하며, 교법을 설하는 주체로 불자의 귀의와 숭배의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불은 불교의 개조이며 교주인 석가모니를 이르나, 과거제불, 3세시방 제불, 법신·보신·화신으로서의 부처와 보살 등 많은 불이 있다. 불은 10력·4무외·3염주·대비 등의 덕과 18불공불법이라고 일컫는 덕을 갖추고 있으며, 여래10호를 가진다.

法이란 불타에 의해 설해진 교법을 의미하는데, 경전과 경전의 내용인 교리로 대별할 수 있다. 경전은 경·율·논 삼장체제를 가지며, 경장은 부처님의 설법을, 율장은 불교도들의 생활규정과 작법, 교단의 규약을, 논장은 경 또는 율을 해석하거나 논술한 것을 기술한 것이다. 교리에는 초기불교

의 5蘊, 12處, 18界, 3法人, 12緣起, 4제, 3學, 37보리분, 4향4과 등과 대승불교의 6바라밀, 보살10지 등의 수행단계, 불성, 여래장, 8식, 3性, 2無我, 보리심, 6大, 4曼, 3密 등이 있다.

僧이란 승가 또는 중이라 번역하여서 집단을 의미하는데, 이를 和合衆이라고도 일컫는다. 불타를 대신하여 민중에게 불교의 이론이나 실천을 전하고 민중을 교화하는 출가자, 혹은 그런 단체를 지칭한다. 출가자인 비구, 비구니, 재가자인 우바새, 우바이 더하여 4衆이라 칭하고 여기에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를 더하여 7衆이라고도 한다.

3 불교분야 분류법 비교분석

3.1 분류법 개요

3.1.1 KDC

1947년 발행된 박봉석의 조선십진분류표(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by Pak Bong Suk, 이하 KDCP)는 많은 도서관들에서 사용되었으나, 기호의 길이가 최고 네 자리로 더 이상의 세분과 주제삽입이 어렵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최신성이 결여되었다. 그리하여 1964년 한국도서관협회에 의해 KDC 초판이 발행되었고, 이후 1966년에 수정판, 1980년에 제3판, 1996년에 제4판을 간행되었다.

불교분야는 종교(200)의 10개 綱중 하나로 220에 위치하고 있으며, 9개의 요목과 144개의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1〉 분류법별 요목 비교

KDC (4판)	CLC (4판)	NDC (9판)
220 佛教	B94 佛教	180 佛教
221 佛教教理	B941 大藏經	181 佛教教理, 佛教哲學
222 諸佛, 菩薩, 佛弟子	B942 經及經疏	182 佛教史
223 經典(佛典, 佛經, 大藏經)	B943 律及律疏	183 經典
224 宗教信仰, 信仰錄, 信仰生活	B944 論及論疏	184 法語·說教集
225 布教, 教育, 教化活動	B945 布教, 儀注	185 寺院, 僧職
226 寺院論	B946 宗派	186 佛會
227 法會, 儀式, 行事(儀軌)	B947 佛教組織及寺院	187 布教·傳道
228 宗派	B948 對佛教的分析和研究	188 各宗
229 喇嘛教	B949 佛教史	

3.1.2 CLC

‘中國圖書館圖書分類法’은 중국국가문물 관리국의 지원하에 북경도서관이 제안하고 전국 36개 기관이 찬조하여 1975년에 초판이 발행되었다. 이후 1980년에 제2판, 1990년에 제3판이 발행되었으며 1999년 제4판이 ‘中國圖書館分類法’이란 명칭으로 발행되었다.

CLC는 5개의 대부류를 알파벳 문자로 표현한 22개의 기본 대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알파벳 문자뒤에 아라비아 숫자를 결합하여 하위 항목을 십진으로 세분 표시하고 있다.

불교분야는 철학(B)의 대류 아래에 있는 종교(B9)의 하위항목인 B94에 분류되며, 9개의 요목과 24개의 세목을 가진다.

3.1.3 NDC

NDC는 靑年圖書館員聯盟에서 1928년에 발간한 기관지 ‘圖研究’에 和漢洋圖書共十進分類表案을 발표한 것이 그 기원이 되었

다. 1929년 ‘日本十進分類法’으로 改題되어 되었고, 2차대전 후 국립국회도서관이 창설되면서 분류에 NDC를 채용하였고 이의 유지, 관리가 日本圖書館協會로 이관되었다. 이후 1931년에 제2판 1935년에 제3판, 1939년에 제4판, 1942년에 제5판, 1950년에 제6판, 1961년에 제7판, 1978년에 제8판, 1995년에 제9판이 간행되었다.

불교분야는 철학(100) 綱 항목인 180에 배정되어 있으며 8개의 요목과 73개의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3.2 요목별 비교

분류법별 요목전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KDC와 NDC는 불교교리를 두 번째 요목으로 두고 있으나 CLC는 이에 관한 별도의 요목이 없다.

둘째, KDC는 제불, 보살, 불제자에 관한 요목, 종교신앙, 신앙록, 신앙생활에 관한 요목, 라마교에 관한 별도의 요목을 가지며, NDC와 CLC는 다른 요목의 세목으로

이를 분류한다.

셋째, KDC와 NDC는 경전에 대하여 1가지 요목만을 배정하였으나, CLC는 대장경과 경, 율, 논에 대해 각각 요목을 주고 있다.

넷째, CLC는 불교분석연구 항목을 요목에 구성하였다.

다섯째, 불교사는 CLC와 NDC에서 별도 요목으로 주고 있으나, KDC에서는 불교의 세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상에서 불교분야에서 3국의 분류표는 전체적으로 비슷한 구성을 가지나, 분류수준과 목의 전개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 세목별 비교

3.3.1 불교

KDC의 불교 요목은 다른 분류법의 2~3개 요목을 포함하고 있다.

CLC와 NDC 모두 불교사를 별도 요목으로 하여 전기를 포함하고 있고, KDC는 불교사를 세목으로 둔 대신 제불, 보살, 불제자 항목을 222에 설정하여 이를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CLC나 NDC의 경우 역사적 인물로서 석가모니에 대한 분류만 가능할 뿐 기타 부처나 보살 등에 관한 항목 설정이 미약하다.

KDC가 220.1에 불교철학 및 사상을, 221에 불교교리를 두고 있는 것과 달리 NDC는 181에 불교교리와 불교철학을 묶어 분류하고 있다. 불교철학은 교리로부터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계를 명확히 하기 어려워 KDC의 경우 분류가 나누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220.1을 불교일반으로

주어 불교전반에 관한 개·원론서 등을 분류하게 하고 상세한 불교철학과 교리는 221에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CLC에서는 B948에 對佛敎的分析和研究를 두어 불교관련 연구를 분류하고 있으나, 해당 주제별로 세분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배치하는 것이 분류의 목적에 좀더 부합할 것이다.

3.3.2 불교교리

KDC에서는 221.1과 221.2에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에 관한 일반교리를 분류할 수 있는 항목을 설정하고 221.4부터 221.9까지 각 교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분류가 나누어질 우려가 있고, 소승불교와 대승불교 교리라는 용어의 선정에도 문제가 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근본교리에 후대들어 대승불교의 교의가 추가된 것일 뿐 소승과 대승으로 구분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항목을 삭제해야 한다.

또, NDC가 181.6에 수행론, 불교도덕, 계율을 두는데 반해 KDC는 신앙생활인 224.81 수도생활에 수행생활 포함하고 있다. 신앙생활의 일부분이 아니라 원시경전의 37보리분법, 3학, 부파불교의 수도계위, 대승불교의 수행계위 등의 교리를 분류할 수 있도록 수행론 불교교리아래 세목으로 설정해야 한다.

3.3.3 제불, 보살, 불제자

CLC에서는 B949.9 전기에서 NDC에서는 182.8 석가, 불제자에서 부처님과 불제자에

<표 2> 분류법별 불교요목, 불교교리요목, 제불, 보살, 불제자요목 세목 비교

KDC (4판)	CLC (4판)	NDC (9판)
220 佛教 220.1 佛教哲學 및 思想 220.3 辭典, 事典 220.4 講演集, 隨筆集 220.8 叢書, 全集, 選集 220.81 個人全集, 選集 220.82 2人 이상의 全集, 選集 220.9 佛教史	B94 佛教 B948 對佛教的分析和研究 B949 佛教史 B949.9 傳記	180 佛教 180.9 라마教 三階教 182 佛教史 182.8 釋迦 佛弟子 182.88 名僧傳 182.9 佛跡
221 佛教教理 221.09 教理史 221.1 小乘佛教 221.2 大乘佛教 221.3 教理判斷, 教判論 221.4 叢論, 輪迴說(因果論), 緣起論 221.5 實相論, 眞如論, 法性論 221.6 涅槃論, 極樂論, 地獄 221.69 證果論, 機限論 221.7 菩薩論 221.8 佛陀論 221.9 기타 221.91 認識論 221.97 辨證論		181 佛教教理, 佛教哲學 181.02 教理史 181.2 教相判釋 181.4 緣起論, 十二因緣, 業, 輪迴 181.3 實相論, 眞如, 法性, 無爲 181.7 証果論, 涅槃論 181.5 機限論, 菩薩論 181.8 佛陀論
222 諸佛, 菩薩, 佛弟子 222.1 理想佛 222.2 釋迦佛(釋迦牟尼) 및 그 生涯 222.23 誕生(降誕) 222.24 幼年 및 宮廷時代 222.25 出家 및 成道時代 222.26 說法時代 222.27 入涅槃 222.3 諸菩薩 222.31 觀世音菩薩 222.32 地藏菩薩 222.33 彌勒菩薩 222.34 文殊菩薩 222.35 普賢菩薩 222.4 佛弟子		181.6 修行論, 佛教道德, 戒律

〈표3. 분류법별 경전요목, 종교신앙, 신앙록, 신앙생활요목 세목 비교〉

KDC (4판)	CLC (4판)	NDC (9판)
223 經典(佛典, 佛經, 大藏經)	B941 大藏經	183 經典
223.09 經典成立史		
223.1 南方系經典		
223.4 北方系經典		
223.5 經部, 經疏(經藏)	B942 經及經疏 B942.2 小乘	
223.51 阿含部		183.1 阿含部
223.52 本緣部		183.19 本緣部
223.53 般若部	B942.1 大乘	183.2 般若部
223.54 法華部		183.3 法華部
223.55 華嚴部		183.4 華嚴部
223.56 寶積部		183.5 寶積部
223.57 大集部		183.58 大集部
223.579 涅槃部		183.59 涅槃部
223.58 經集部		183.6 經集部
223.59 秘密部	B942.3 秘密部	183.7 秘密部
223.6 古逸經, 偽經		
223.61 古逸經		
223.63 偽經		183.79 偽經
223.7 律部, 律疏(律藏)	B943 律及律疏	183.8 律部, 律疏
223.71 小乘律		
223.72 四分律	B943.3 四分律(戒本, 羯磨)	183.83 四分律
223.73 五分律	B943.4 五分律	183.85 五分律
223.74 大衆律		183.84 摩訶僧祇律
223.75 有部律	B943.2 有部律	183.81 パーリ律, 有部律
223.76 飲光律		
223.77 正量律		
223.78 大乘律	B943.1 大乘律	183.86 大乘律, 梵網經
223.79 雜律	B943.9 其他	183.87 瓔珞律
223.8 論部, 論疏(論藏)	※ B944 論及論疏	183.88 雜律
223.81 釋經論部	B944.1 大乘宗經論	183.89 因明
223.84 毘曇部	B944.2 大乘釋經論	183.9 論部, 論疏
223.85 中觀部	B944.3 大乘諸論釋	183.91 釋經論部
223.86 瑜伽部	B944.4 小乘論	183.92 毘曇部
223.87 論集部	B944.5 秘密部論	183.93 中觀部
223.9 外交部	B944.6 ?藏	183.94 瑜伽部
224 宗教信仰, 信仰錄, 信仰生活		183.95 論集部
224.1 佛教倫理學		
224.17 佛教倫理問題		
224.2 法語, 語錄		
224.3 信仰錄, 冥想錄		
224.4 佛教說話		
224.8 個人信仰生活		
224.81 修道生活		
224.82 宗教的體驗		
224.9 家庭信仰生活		

〈표5. 분류법별 법회, 의식, 행사요목, 종파요목, 라마교요목 세목 비교〉

KDC (4판)	CLC (4판)	NDC (9판)
227 法會 儀式 行事 (儀軌) 227.1 行事作法 一般 法式 一般 227.2 表白 起請 227.3 講式 (讀文) 227.4 結界 및 點眼佛事 227.49 聖地 聖所 227.5 儀式 227.51 齋儀 227.52 受戒 227.53 禮敬 227.54 茶毘 227.55 祈願 227.58 기타 儀式 227.59 回向 227.6 佛像 227.7 讚佛歌 227.8 法服 梵鐘 佛具		186 佛會 186.1 行持作法 法式 勤行 186.3 表白起請 186.2 講式 : 讀文 186.6 懺悔 186.8 佛像 菩薩 186.81 曼陀羅 186.5 聲名 諷誦 佛教音樂 186.4 佛具 186.7 佛教美術 186.9 巡禮
228 宗派 228.1 律宗 (俱舍宗) 228.19 毘舍宗 (毘曇宗) 228.2 成實宗 228.29 三論宗 228.3 法相宗 (唯識宗, 慈恩宗) 228.4 華嚴宗 228.49 地論宗, 攝論宗 228.5 天台宗 228.59 涅槃宗 228.6 淨土宗 淨土教 228.69 時宗, 融通念佛宗 228.7 禪宗 228.78 各派 228.791 曹溪宗 228.8 真言宗 密教 228.89 眞宗 228.899 日蓮宗 228.9 기타 宗派 228.95 圓佛教 229 喇嘛教	B946 宗派 B946.7 律宗 (南山律宗) B946.2 三論宗 (法性宗) B946.3 法相宗 (唯識宗, 慈恩宗) B946.4 華嚴宗 (賢首宗) B946.1 天台宗 (日蓮宗, 法華宗) B946.8 淨土宗 (蓮宗) B946.5 禪宗 (佛心宗) B946.6 密宗 (秘宗教, 眞言乘, 金剛乘) B946.9 其他	188 各宗 188.1 律宗 188.2 論宗 188.22 俱舍宗 [毘曇宗] 188.24 成實宗 188.23 三論宗 188.21 法相宗 [唯識宗] 188.3 華嚴宗 188.4 天台宗 188.6 淨土教 淨土宗 188.69 融通念佛宗, 時宗 [遊行宗] 188.8 禪宗 188.5 眞言宗 [密教] 188.7 眞宗 [淨土眞宗] 188.9 日蓮宗 188.98 創價學會, 中山妙宗, 立正佼成會 188.59 修驗道, 山伏

대해 다루고 있지만, 자세히 세분되어 있지는 않다.

KDC 222.1 理想佛에서 주기에 '歷史佛 以前의 諸佛을 포함한다.'고 하였으나, 과거 제불외에도 삼세시방제불, 법신불 등 많은 부처가 있으므로 '釋迦牟尼佛 이외의 諸佛을 포함한다.'로 변경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또, KDC 222.33 彌勒菩薩은 후에 彌勒佛이 됨으로 '彌勒佛을 포함한다'는 주기를 기재하고 觀世音, 地藏, 彌勒, 文殊, 普賢菩薩의 많은 다른 보살들이 있으므로 기타 보살 세목을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KDC 222.4 佛弟子는 그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다. 직계제자와 고승을 하위 항목을 배정하고 220.99는 사용하지 않는다.

3.3.4 경전

KDC, CLC, NDC 모두 經·律·論 삼장 체계로 경전을 나눈후 경부를 그 성격에 따라 CLC는 소승 과 대승, 밀교부로, NDC는 일본 대정신수대장경의 10부로 분류하고 있으며, KDC는 223.1 남방계경전과 223.4 북방계경전으로 경전을 나눈후 223.5 경부에서 阿舍部 등 10부로 다시 나누고 있다. 율부는 전개는 3국이 대동소이하며, 논부에서 CLC만에 다시 소승, 대승, 밀부로 구분하고 있다. KDC의 경우 경·율·론 각부에서 이미 남방, 북방의 구별없이 경전별로 항목을 나열하여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223.1 남방계경전, 223.4북방계경전 항목 설정자체가 무의미하고, 분류가 나누

어 질 수 있으므로 삭제해야 한다.

3.3.5 종교신앙, 신앙록, 신앙생활

신앙에 관한 요목으로 CLC, NDC 모두 다루지 않고 있으나 다만, KDC가 신앙의 세목으로 분류한 224.2 범어, 어록이 184 법화·설교집으로 224.4 불교설화가 184.9로 NDC에서 분류되어 있다.

범어란 부처님의 말 또는 경전에 설해진 말로 일반적으로 스님들이 정법을 설명한 말이나 글을 말한다. 어록은 큰스님들이 설명한 불교교리를 후일 제자들이 기록한 책이다. 이 두가지 모두 대중교화를 위한 말과 글임으로 225 布教, 教育, 教化活動 요목의 說法아래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또, 불교설화 중 부처와 보살, 불제자에 관한 것은 222의 해당 세목에 분류하여 그 일관성을 유지하고 그의 기타설화는 불교 사상을 이야기로 표현하여 대중을 깨우치는 방편으로 파악하여 범어, 어록과 함께 설법 아래 분류하도록 한다.

신앙생활에 관한 세목은 224.8 개인신앙생활, 224.9 가정신앙생활 2가지로 개인의 신앙생활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신도회 등 신행단체와 그 활동사항에 관한 세목의 추가가 요구된다.

3.3.6 포교, 교육, 교화생활

CLC는 B945 布教, 儀注 요목에 별다른 세목을 주지 않고 있으며 NDC도 187 布教·傳道에 2개 세목, 184 법화·설교집에

1개 세목을 주고 있는데 반해 KDC 225 포교, 교육, 교화활동 아래 무려 26개 세목을 두어 그 분류를 상세히 하고 있다. 그러나, 225.1 설법학과 225.2 설법은 자료에 비해 주제가 너무 세분되어 있으며, 225.8 불교 사회학 225.83 불교와 정치, 225.84 불교와 기타 주제와의 관계는 이 요목보다는 220 불교 요목아래 불교와 기타주제별로 세목을 만들어 분류하는 것이 좀더 논리적이다. 다만, 불교 사회복지사업은 그 목적이 교리 구현을 통한 포교, 교화에 목적이 있음으로 이 요목에 있는 것이 적합할 것이고, 복지사업외에도 환경 등 다양한 사회사업이 있으므로 225.8을 불교사회사업으로 항목명을 바꾸도록 한다.

3.3.7 사원론

사원론 역시 CLC에서는 B948의 요목을 줄뿐 세목전개를 하지않고 있으며, NDC는 가람, 불탑, 범종 등 사찰을 구성하는 외적 요소들을 185.5에 설정하고 있으나, 불상, 佛具 등은 186의 법회의 세목으로 되어 있어 일관성이 떨어진다.

3.3.8 법회, 의식, 행사 (의례)

CLC는 B945에서 포교와 함께 의주 요목이 설정되어 있으며, NDC는 186 불회라는 항목명에 세목을 전개하고 있다. KDC 227의 法會, 儀式, 行事 (儀軌)는 법회, 의식, 행사 등의 불교의식 외에도 불상, 찬불가, 법구 등 불교예술품을 세목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불교의식, 불교예술로 요목명을 변경하는 것이 좀더 적합하다.

227.4 結界 및 點眼佛事는 결계 및 불사로 세목명을 바꾸어 여러 불사를 포괄하고 227.59 회향은 의식의 마지막에 포함되어 있는 절차의 하나임으로 별도 세목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

NDC가 186.4에 佛具, 186.5에 聲名, 諷誦, 佛教音樂, 186.7 佛教美術 186.8에 佛像, 菩薩을 설정하고 있는데 반해 KDC는 227.6에 佛像, 227.7에 讚佛歌 227.8에 法服, 梵鐘, 法具를 배정한 것외 대부분의 불교예술이 600 예술 아래에 분류되어 있어 자료가 여러분야에 분산되고 있다. 227.6을 불교미술로 변경하여 세목으로 불상 및 탑, 법구 및 법복, 회화, 서예 및 인쇄, 사진, 기타불교미술을, 227.7을 불교음악으로 변경하여 세목으로 찬불가, 범패, 성명, 기타불교음악을, 227.9를 불교건축으로 변경하여 세목으로 가람, 조경, 기타불교건축을 주어 불교예술에 관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분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3.3.9 종파

종파에 대한 세목은 KDC, CLC, NDC 모두중국의 교상판석에 의해 성립된 종파명을 채택하고 있어 서로 유사하다. 비록 KDC가 조계종과 원불교 등 한국불교의 특성을 반영한 세목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선종 위주의 한국불교 종파에 대한 항목이 부족하다. 조계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한국 불교 종파가 228.78에 집중되어 분류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율종, 비함종, 성실종, 삼론종 등의 종파들에 관한 자료의 양은 많지가 않아 분류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들 종파를 기타중국종파, 기타일본종파로 축소하고 기타한국종파(비선종)을 생성하고 선종을 확장후 한국불교종파인 태고종과 천태종, 기타한국종파항목 항목을 설정한다.

2.3.10 라마교

CLC에는 라마교를 위한 별도 항목이 없으며, NDC는 180 불교아래 세목으로 라마교를 배정하고 있다. KDC는 라마교에 229 요목을 부여하고 있으나, 밀교의 일종인 티베트불교이므로 288.8 진언종, 밀교 아래 항목으로 이치되어야 한다.

3 결 론

이상의 KDC, CLC, NDC 비교를 보면 KDC가 가장 많은 요목과 세목을 가져 가장 잘 분류되어 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중복된 항목, 누락된 항목, 지나치게 세분화된 항목, 분산된 항목 등이 있어 개선이 요구되었고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20.1 불교철학 및 사상과 221 교리는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분류가 분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220.1을 불교일반으로 바꾸어 개·원론서를 분류하고 221에 불교철학과 교리를 배정하였다.

둘째, 221.4-9까지 각 교리개념에 따라 내용분류가 되고 있으므로 이를 포괄하는

221.1 소승불교와 221.2 대승불교의 항목설정은 무의미 함으로 이 세목을 삭제하고, 수행론 세목을 설정하였다.

셋째, 222.3에 기타보살에 관한 세목을 설정하고 그 대상이 불명확한 222.4 불제자의 하위 항목으로 직계제자와 고승을 두어 이를 명확히 했다.

넷째, 223.1 남방계경전과 223.4 북방계경전은 223.5-9까지의 항목과 내용상 중복이므로 삭제하였다.

다섯째, 대중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224.2 법어, 어록과 224.4 불교설화를 225.2 설법아래에 이치하고 신행단체에 대한 세목을 추가하였다.

여섯째, 불교사회학 아래 분류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불교와 기타주제에 관한 세목을 220 불교요목에 세목하였고, 불교사회복지사업은 불교사회사업으로 항목명을 바꾸었다.

일곱째, 227 법회, 의식, 행사 (의례)를 불교의식 및 불교예술로 요목명을 변경하고 불교예술에 대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분류할 수 있도록 세목을 설정하였다.

여덟째, 불필요한 종파의 항목을 축소하고 태고종, 천태종, 기타한국불교종파 항목 등을 설정하였다.

아홉째, 밀교의 일종인 229 라마교는 228.8 진언종, 밀교 아래 분류하였다.